

1960년대 한국만화에서 드러난 반공주의의 몇 가지 양태

한상정*

1. 들어가며
2.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1960년대
3. 1960년대 한국만화계의 상황
4. 반공주의의 출현 방식
 - 4-1. 반공주의가 작품의 주서사인 경우
 - 4-2. 반공적 서사에 보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 4-3. 반공주의의 장식적 활용
 - 4-4. 반공주의의 비극성 내포
5. 나오며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60년대의 반공극시 아래에서 한국만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9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약술하고, 이어서 1960년대 한국만화계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동시대 만화계의 다양한 모순적 구조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1960년대 반공 반복성이 드러난 만화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로 반공 반복성이 작품의 주서사인 경우, 두 번째로 반공 반복성이 주 서사에 보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반공 반복성이 주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반공 반복성을 장식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연구 자료의 빈약성은 향후 연구들을 위한 몇 가지 유형 제시 이외의 접근이 힘들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주제어: 1960년대, 반공·반복성, 반공만화, 사전검열, 합동, 반공극시)

* 파리1대학 미학예술학 박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강의.

1. 들어가며

만화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일천하다. 비록 1990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공주대학교에 ‘만화예술과’가 생기고, 1996년에 상명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 ‘만화’를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생겨나면서 만화를 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문화적 정당성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업적 기대는 부족한 부분을 긁어주기보다는 외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들쭉서놓고 있다. 그나마 ‘문화’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만화담론들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많이 보면 좋은 작품이라는 자본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으며 만화학과가 생긴지 20년임에도, 기초적인 ‘한국만화사’조차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학’으로서의 만화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이다.

심심찮게 일어났던 어린이날 기념 ‘만화 분서갱유’는 오늘날 60년대 만화자료를 만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다. 쉬이 태울 수 있는 자료를 누가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했겠는가. 현재 만화에 대한 사료들을 뒤질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박물관¹⁾, 인천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박물관이다. 1960년대 작품들을 검색해보면 전자에서는 약 400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 몇몇 복간된 작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일일이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자들도 원칙적으로 하루에 20권만 열람할 수 있고, 그것도 담당자가 옆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연구자들에게 불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만, 부스러지고 있는 종이상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

1) 본 논문에서 언급된 실물자료들은 모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박물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특히 자료보존관리를 맡고 있는 심현필 씨의 적극적 협조에 지면으로 감사드린다.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문DB 사업을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순식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작부터 한계를 노정한다. 소실된 1960년대 자료들은 이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보관하고 있는 400여권의 작품들 중 이미 절반이 박물관내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어, 남은 것들 중 무작위로 읽어낼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연구라면 50년대와 70년대의 흐름 속에서 60년대를 읽어내야 하겠지만, 그 부분 역시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이후의 연구들에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한된 범위의 분석을 통해 반공서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2.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1960년대

1960년 4·19혁명이 ‘반공분단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했다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는 다시금 이러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소장 박정희를 위시한 주도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간의 군정통치(1961년 3월 - 1963년 12월)에 착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특수범죄(반

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대세력들을 차례로 제거,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1962년 12월 국민투표)을 시행한다. 1963년 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1963-1972)은 정식 출범했다.

김정훈과 조희연은 한국에서 형성된 냉전형 사회를 ‘반공규율사회’로 개념화하는데, 이는 1960년대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얼마만큼이나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반공규율사회란 ‘내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가상적인 국민적 의사합의로 내재화된 동질적인 ‘극우공동체’를 지칭한다(…) 이승만 시기가 한국전쟁이라는 전시적 상황 속에서 반공규율사회가 형성된 시기라면 박정희 시기는 반공규율사회의 군사주의적 논리가 가장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³⁾”고 정리한다. 이러한 정의는 1960년대의 반공국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권혁범은 반공주의가 현재의 일상에도 여전히 견제함을 보여주면서 반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방식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물리적 공포의 환기, 그리고 반공을 하게 될 경우의 이익 또는 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한 강조였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반공주의는 공격에 대

-
- 2) 김일영은 이 기간 동안 쿠데타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정치기반과 조직을 확충하고(공화당 창당), 그것에 소요되는 물질적 자원을 장악하면서(4대 의혹사건을 통한 정치자금 마련), 경제적 성과를 통해 부족한 정당성을 메우려고 노력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4대 의혹사건이란 증권과동, 새나라 자동차사건, 워커 힐사건, 삐쩍꼬 사건을 말한다. 「5·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311-331쪽, 『한국국제정치학회』 41집 2호, 2001, 324-325쪽.
 - 3) 김정훈, 조희연,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2003, 129-188쪽. 이명희의 논문에서 재인용, 「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월남작가 박순녀의 경우」 7-38쪽, 『아시아여성연구』, Vol.47, No.1, 2008.

한 수동적 반응만이 아니라,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⁴⁾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를 위한 태도와 방식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에 대한 것과 남한 내의 ‘좌익’에 대한 것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 억압의 형태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박상환이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더 무서운 점은, 그것이 “무한 반복되도록 무의식적으로 각 행위주체에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공주의가 1960년대 한국만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직접적인 양태와 간접적 양태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만약 직접적인 양태가 더 ‘적극적인 대응’이라면, 간접적인 양태는 일정 정도 만화가들에게 반공주의가 ‘내면화’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제해본다. 이 양태 분류에 앞서 우선 1960년대 한국만화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3. 1960년대 한국만화계의 상황

1960년대는 한국만화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긍정적 시기인 동시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부정적 문제점들이 배태된 시기이기도 하며, 반공국시의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영향을 끼친 시기이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만화단행본들과 만화잡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당시의 신문기사를 참조하면, 김성환의 『꺼꾸리와 장다리』⁶⁾, 『고바우영감』⁷⁾, 『고사리군』⁸⁾, 『고바우 영감』(제2권)⁹⁾, 『세모돌이·네모돌이』¹⁰⁾가

4)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7-42쪽,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8, 58-59쪽.

5) 박상환, 한국전쟁과 철학/철학자의 선택 - 반공이데올로기의 자기검열, 『문화과학』 23(9) 183-199쪽. 이명희 논문에서 재인용.

6) 문광사(文光社) 발행, <동아일보> 1955년 6월 24일.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1956년 한 해만 하더라도, <만화세계>¹¹⁾ <만화소년(창간특대호)>¹²⁾, <만화천지(漫畫天地)> 창간¹³⁾, <만화춘추(8월호, 창간호)>¹⁴⁾, <만화학원 12월호>¹⁵⁾, <만화왕(1호)>¹⁶⁾ 등, 한 해만도 6종이 발간될 정도로 만화 전문잡지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60년대에 들어서면, 1963년 1월 아동잡지 <새소년>, 1967년 아동잡지 <어깨동무>¹⁷⁾, 1968년 성인지 <선데이 서울(1968-1991)>, 1969년 아동잡지 <소년중앙(1969)> 등이 창간되고 이들은 만화전문지는 아니었지만 모두 만화를 부분적으로 연재했다.

잡지공간은 새로운 만화가들의 발굴 및 기성 작가들의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잡지들을 통해 60년대의 만화가들이 활동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약 200페이지에 이르는 장편 단행본 발간들도 이어진다. 박인하는 ‘1956년에서 1959년까지 성문문고, 제일문고(대표 이준덕), 부영

-
- 7) 문화교육출판부(文化教育出版部) 발행, <동아일보> 1955년 11월 6일.
 - 8) <동아일보> 1955년 12월 21일.
 - 9) <동아일보> 1956년 6월 27일.
 - 10) 정양사(正陽社) 발행. <동아일보> 1958년 8월 17일. 김성환의 작품은 계속 신간소개로 신문지상에 등장하는데, <동아일보> 1962년 12월 7일자에는 만화 『새침이의 일기장』, 크로바 문고 발행. 30원이라고 실려 있다.
 - 11) 만화세계사 발행. <동아일보> 1956년 1월 18일. 2권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박인하는 한국현대예술사대계 3권에서 만화세계가 1956년 2월에 창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2호가 1월에 발간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참조하자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12) 만화소년사 발행. <동아일보> 1956년 2월 17일. 박인하는 위의 책에서 <만화소년소년>(1956년 11월 창간)라는 잡지를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와 동일한 잡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잡지인지 점검할 필요 있음.
 - 13) <동아일보>. 1956년 7월 13일.
 - 14) 춘추문화사 발행. <동아일보> 1956년 8월 3일.
 - 15) 학원사 발행. <동아일보> 1956년 11월 11일.
 - 16) 만화세계사 발행. <동아일보> 1956년 12월 20일.
 - 17) 1972년 신문수가 <어깨동무>에 64페이지 부록으로 『도깨비 감투』 연재를 시작. 아동잡지 최초로 만화를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일반화되었다고 박인하는 밝히고 있다.

이 문고(대표 오학운), 크로바문고(대표 박기준)와 더불어 만화출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¹⁸⁾고 지적한다. 1960년대 들어오면서 김경언과 산호 등의 인기작가를 보유한 부영이문고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면, 중반에는 제일문고가 김종래, 조원기와 엄희자, 오명천, 박기당, 임창 등의 시리즈를 출판하며 인기를 끌었다.

크로바문고는 만화가 박기준이 직접 경영하며 친형인 박기정, 문화생 박부성, 방영진이 주로 활동했던 출판사인데, 이러한 케이스는 여러 번 있었다. 1964년 고우영, 김원빈, 김기율, 박기당, 유세종이 함께 모여 ‘오성(五星) 문고¹⁹⁾’를 만들었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1969년에는 창작과 유통의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화가 임창이 다른 작가들과 함께 ‘땡이문고²⁰⁾’를 설립하기도 했다.

60년대에 활동하던 대표적인 작가들로 우리는 고우영, 권영섭, 김기율, 김경언, 김성환, 김용환, 김원빈, 김종래, 민애니, 박기당, 박기정, 박기준, 박광현, 방영진, 산호, 신동우, 신동현, 안의섭, 우명천, 유세종, 이범기, 이근철, 장은주, 조원기, 엄희자, 최상록 등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장르만화들을 개척하게 되는데, 사극이라면 김종래, 박광현, 박기당, 이범기, SF라면 산호, 신동우, 이정문, 학원물이라면 방영진, 순정이라면 권영섭, 민애니, 조원기, 엄희자, 장은주, 최상록, 동물만화라면 김경언, 스포츠물이라면 박기정 등이 그 대표적 작가들이다.

한편, 1950년대 중반, 만화 대여점으로 출발해서 1958년을 전후로 ‘만화방’이 전국적인 망으로 확대된다.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책 총판

18) 박인하, 만화, 애니메이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III 1960년대』, 시공사, 2001, 472-477쪽.

19) 이 역시 연대확인이 필요하다. 박인하는 1966년이라고 한다.

20) ‘합동’의 독점에 반대해서 만든 이 출판사에 대한 방해책동은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이 방해에 의해 봉기된 이후 임창은 1975년에 다시 ‘땡이 문고’를 설립하고, 향원, 이상무, 허영만, 김민 등 작품을 출간한다.

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총판(이국전)’이 생겼고, 이 총판이 서울을 중심으로 만화방 영업망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공급할 만화들을 출판하기 위해 부영이문고(오학운)의 설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9년을 전후로 해서 약 천개에서 이천여개 사이의 전국적 만화방 유통라인이 형성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서점에서는 더 이상 만화책을 받지 않게 되었다. 만화의 중심 유통구조가 출판사-총판-중간도매-만화방으로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이러한 만화방 중심의 유통구조-오늘날에는 도서대여점까지 이어지는-가 만화생태계의 태생적 허약성을 노정한다. 즉, 책을 사는 대신에 빌려보는 행태로 대신하는 것이야말로 만화산업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취약한 산업구조는 새로운 자본 및 인력을 끌어들이는데 명확한 한계를 노정한다.

한편, 60년대 하반기, 출판과 유통을 장악해왔던 ‘진영출판사’의 이영래는 다른 만화출판사들을 모아서 출판 유통을 통폐합하고 지분을 나누자는 제안을 한다. 1967년 그의 제안에 따라 여러 출판사들이 모여서 주식회사 ‘합동’을 결성하며, 이는 곧 출판과 유통의 독점으로 이어졌다. ‘합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만화가들도 자신의 단행본을 만화방으로 유통할 수 없었다. 이것이 만화의 양적, 질적 퇴보를 불러온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합동의 무소불위의 권력, 독점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이어주는 반공국시 덕분에 오래 지속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강력한 공권력은 만화가들로 하여금 쉽게 만화계의 억압에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만화방을 중심으로 한 대여구조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모순의 집적체 중의 하나라면, 다른 한 가지는 ‘사전검열’이다. 물론 지금은 사후심의의 형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화생태계의 건전화에 딱히 많은 것을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1960년대의 사전검열은 만화창작활동의 양적, 질적 제한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도 작품에 대한 사전심의보다는 양서를 더 많이 발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959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자,

“12일 오후 문교부에서는 감수성이 강한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를 보호하고 이들의 맹목적인 모방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를 막아내어 도의교육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자, 문학가, 만화가들에 의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16일의 연석회의에서는 불량만화에 대한 단속방법을 법적인 조치보다는 양서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아동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아동도서 선정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문교부에 초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²¹⁾

이는 1960년 1월 24일에서도 “2월중에 좋은 만화를 선정”할 것이라고 재언급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부산의 한 소녀가 악질 만화책에서 힌트를 받아 가지고 인질로 동굴 안에 감금당하였으니 돈 五백만 원을 가지고 와서 데려가라는 협박 편지를 부모에게 보내어 그럴듯한 탐정소설 같은 연극을 꾸며내어 천여 명 경관이 동원되었다는 사건은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였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대단치 않게 생각한 만화 한 폭이 이같은 비극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글이나 그림의 힘이 얼마나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당국은 이제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언명하였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 안될까?”²²⁾

“검열과 단속 불충분으로 인하여 각종의 저속한 대중잡지·만화·연극·영화 등의 내용이 미숙한 소년들에게 폭행 범죄·잔인한 행동들로의 강한 자극을 주고

21) <동아일보> 1959년 6월 13일.

22) <국민보>, 1958년 5월 28일, 김성진, ‘도색잡지의 해독’.

있는 것을 큰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²³⁾”

1961년 군사쿠데타는 이 후자의 입장을 강화하고, 드디어 사전검열을 시작한다. 손상익은 1961년 8월에 만들어진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가 마치 만화가들이 스스로 심의기관을 만든 것처럼 위장하고, 유료심사를 했다고 지적한다. 매수와 편파심으로 문제점이 드러나자 1968년 9월 9일 문화공보부 산하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시기부터 공권력적인 사전심의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정리한다²⁴⁾. 그러나 1962년 10월 8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불량만화범행이(…) 문제화되고 있어, 치안국과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에서는 거리의 불량만화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작년 12월엔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발족하여, 출판의 사전검열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약 2,500권을 검열하여 그 중의 상당수를 출판 불허하고 반송하였다고 한다²⁵⁾”라고 언급하면서 자율적인 검열로는 힘들고 당국의 좀 더 직접적인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1962년부터 출간된 만화에는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의 이름이 나와야 하지만, 실지로 1962년에서 1963년 사이에는 ‘한국아동만화자율위원회’가 책 표지에 찍혀있고, 1964년부터는 ‘한국아동만화자율회’, 그리고 1969년부터는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혀있으니, 작금의 자료만으로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어렵다.

1960년대에 만화의 불건성성 및 단속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문지상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락을 위한 만화는 많이 나

23) <국민보> 1958년 8월 27일, 오석환, ‘정신위생과 소년범죄’.

24) 이어서 1970년 1월 문공부산하의 도서, 잡지, 아동만화 등 3개 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가, 1976년에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바뀐다.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권 시공사, 1998. 272쪽.

25) <동아일보> 1962년 10월 8일, 사설 ‘어린이와 불량만화’.

오고 있다. 그것도 천하고 난잡한 만화책이 어린이의 곱게 자라는 마음을 좀먹고 있다. 이름만 만화가의 건설하고도 유익하며 재미나는 만화책들이 아니라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모작한 것- 대부분이 무책임한 것들로 그득하다. 그래서 종종 당국에서는 그 단속에 손을 뻗어 해로운 만화책을 압수하고 있다²⁶⁾, 또는 “치안국은 전국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치안국은 우선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등록신청중)에서 검필된 것만을 문교부에서 납본 수리케 하여 여기서 인정된 것만을 시중에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²⁷⁾”

한국만화에 있어서 1960년대는, 한편으로 만화단행본의 장르별 진화, 다양한 성격의 잡지들의 등장으로 인한 성숙기의 시작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숙기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 있는 악조건들이 서서히 구조화되고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합동이라는 출판과 유통의 독점시스템, 만화방이라는 대여시스템, 표현을 위축시키는 심의(사전검열체제²⁸⁾) 시스템은, 사실상 반공국시이기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이러한 제약들은 당시의 작품들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4. 반공주의의 출현 방식

1962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경향 각지서 반공만화전. 공보부는 6·25 12돐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시민회관광장’에서, 지방은 각도공보관에서 반공만화전시회를 연다²⁹⁾”는 소식이 실

26) <동아일보> 1962년 12월 15일.

27) <동아일보> 1962년 9월 24일, ‘불량만화 단속’.

28) 현재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려 있다. 해마다 이런 행사를 벌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아마도 유사한 성격의 관변행사들은 지속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 손상익은 60년대의 심의규정 가운데 특이한 점을 들고 있는데, ‘만화책 표지에는 붉은 색을 쓸 수 없고, 연한 주홍색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그는 이를 당국의 ‘레드 콤플렉스’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군사쿠데타의 혁명 강령 중 첫 번째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은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발표된 만화들에서 드러나는 반공주의는, 직접적 양식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주제가 반공서사인 경우이다. 이정민의 『도둑바 결사대』(1965-1966, 12권 완결, 진선미술출판사), 강원의 『쌍쌍전우』(1966, 백미문화사), 고우영의 『반공만화: 김삿갓 북한방랑기』(1969, 수문당), 『첩보원 B2호』(1969, 신진문고) 등의 양식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중심서사에 반공을 담고 있는 내용이 부차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이다. 김종래의 『마음의 왕관』(1962년, 제일문고)이 그 예이다. 간접적 양식으로 셋째, 반공반복적인 내용이 장식적으로 남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공에 대해 말하고는 있으나 그보다는 민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더 큰 작품들을 분류할 수 있다.

4-1. 반공주의가 작품의 주서사인 경우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도둑바 결사대』³⁰⁾는 ‘괴뢰공비’를 해치우기 위해 아이들로 결성된 ‘결사대’의 이야기이다. 권당 60페이지로 12권으로 완결이지만 중간에 상당부분 권수들이 빠져있어 전체 스토리라인을 구성할 수 없다. 공비를 잡아야겠다는 반

29) <동아일보> 1962년 6월 12일.

30) 거의 대부분의 책이 빠져있어, 전체적으로 서사를 구성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권당 60페이지.

공사상에 투철한 아이들이 무기를 들고 국군과 힘을 합하여 공비를 소탕한다는 이야긴 듯하다. 주인공이 아이들이기에, 이야기 구조가 엄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허구적으로 보이지만, 대사들은 즉각적으로 이 만화의 사상을 드러낸다.

“산속에 박쥐처럼 숨어 날뛰는 흉악한 공비들과”, “괴뢰공비”, “지리산 밑에 있는 전라북도 순창군내에 악질공비 팽팡이가 날뛰고 있다 한다!”, “땅딸이 일행은 심문하는 괴뢰비밀경찰을 해치웠으나(…)총소리를 듣고 괴뢰군들에게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모진 고문을 당하고 괴뢰군 사령부로 가는 도중 국군특공대에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고우영의 『김삿갓 북한 방랑기』는 총 98페이지 한권으로 완결되고, 책의 사이즈도 『도둑바 결사대』보다 더 크다. 이 만화책의 추천사는 문교부 장학관 김병오가 썼고, 그 다음 장에는 ‘한국아동만화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권하는 분들에게”라는 글이 적혀있다.

“본 반공만화는 현재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하여 매일 방송되고 있는 5분 드라마, 『김삿갓 북한 방랑기』를 당국의 지원 아래 만화로 꾸민 것으로 앞으로 매달 1권씩 시리즈로 발간될 것입니다. 승공통일은 전 국민의 숙원이며 반공방첩은 물샷틈없어야 하므로, 본 반공만화는 전국의 국민학교 어린이는 물론 중고등학교생으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고루 비치되어야 하겠습니까. 본 반공만화는 당국의 철저한 검열을 마쳤으므로 안심하고 권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화의 시나리오는 이미 방송 대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며, 이 만화의 반공성은 고우영과는 상관없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에 실린 ‘지은이의 말’을 읽어보자.

“벌써 오래전에 ‘핏빛으로 물든 땅’을 버리고 온 몸이지만, 이번에 김삿갓님을 따라 다시 한번 북녘땅을 돌아본 셈인데, 새삼 아니 놀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공산당이란 인간이 아닌 인간이 그토록 못살게 구는 지옥같은 세상이, 바로 하늘이 잇닿은 내 조상이 남겨준 곳에 있다니 슬퍼지기에 앞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나의 심정이 어떤지는 즐거리에 담았습니다만, 이것은 나 혼자 뿐이 아니라 온 겨레의 똑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북녘땅 동포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 따라서 하루빨리 승공통일의 날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대작을 꾸밀수 있게 도움을 주신 수문당과, 제작 중에 여러모로 도와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권에서 또 뵈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죽은 지 100년이 되는 김삿갓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남한을 훑어본 후 그 건설의 모습들을 자랑스러워한 후 서서히 북한으로 들어선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의 비참함을 골고루 조명한 후, 마지막으로 남과간첩을 만나 남한으로 내려가면 꼭 자수하라고 일러준다. 남한의 실상을 모르고 있던 간첩은 남한에 도착한 후 깜짝 놀라며 자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70년대의 스포츠만화에 실리던 고우영만의 위트는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고우영의 필력만은 그대로 살아있는 수작이다. <소년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첩보원 B2호』도 반공적 색채가 뚜렷하다. 이 책의 ‘권하는 말’은 이 만화는 “북한괴뢰의 간첩활동을 신나게 부수는 것”으로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 여러분에게 반공방첩의 정신을 불어넣어주기에 좋은 만화³¹⁾”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1970년부터 <어깨동무>의 별책부록으로 『구월산 유격대』라는 반공의 색채가 진한 시리즈를 내놓는 것으로 봐서, 반공적인 경향이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31) 소년조선일보 주간 신용성의 ‘권하는 말’.

4-2. 반공적 서사에 보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김종래의 『마음의 왕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우영이 아직은 자신의 진가를 다 드러내지 않던 시기라면, 김종래는 당시 만화가로서 그 시대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를 끌던 작가이다. 60년대, 양심을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편부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그 주제이다. 부자들은 적대적이며,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정직하나 가난한 아버지가 리어카를 끈다고 창피해하는 아들 영진이, 당차나 아직은 어린 영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는 어른스러운 영숙이 세 형제는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생활한다. 영진과 영란이가 자신을 창피해한다는 것을 안 아버지가 리어카를 팔아 양복으로 바꿔 입고 몰래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다. 가난한 영진이를 부잣집 아이들과 차별하지 않고 지지해주던 담임선생님도 땀보여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주변에서 그 누구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영숙의 병으로 병원을 가던 자매는 남으로 내려올 때 헤어진 어머니와 마주치지만,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그녀에게 상처받는다. 나중에 몰래 찾아온 어머니는 사실 자신이 간첩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아이들은 공산당을 믿지 말고 핏줄을 믿으라며, 지수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영진이가 4·19데모를 하러 나갔다가 다쳤다는 소식이 들린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적극적 용기를 낸 이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는 지수하며 네 식구는 비록 가난해도 마음의 왕관을 지니고 있었던 덕분에 행복하다.

사실상, 어머니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는 총 330여 페이지 중 314페이지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 만화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닌 만화에 더 가깝다. 강패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던 노신사를 집에 숨겨주면서 화를 내는 아버지의 말쭙(173-174페이지)에는 이것이 잘 드러난다.

“벌어먹을! 이래서야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단 말야. 세상에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세금을 걷어 경찰을 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야? 국회의원은 감투다툼에 눈을 뒤집고, 관은 직위를 얻어 부정으로 그 밑천을 뽑는데 정신이 없고 장사치는 밀수로 배를 불리는 모리배만 늘어가고… 아 세상은 말세다! 공산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그 무지무지한 고생을 겪었음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나라 민족의 큰 불행이 눈앞에 보인다.”

아마도 김종래의 이러한 비판의식이, 반공과 반북서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종종 작품의 서사구조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한다. 72페이지에서 등장했던, 영진이가 우연히 간첩이 버렸던 가방이랑 자신의 가방을 바꿔치기해서 들고 오는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향후 영진이가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끝날 때까지 그런 언급은 없다. 즉, 간첩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까지 고려해보는다면,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현실적 삶의 이야기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수적으로 첨가했지만, 그것이 그다지 성공적으로 결합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어긋남은 일종의 ‘억지성’의 결과이다. 즉, 국시로서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억지로 서사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일어나는 마찰음인 것이다.

4-3. 반공주의의 장식적 활용

간접적 유형의 첫 번째는, 반공적 표현이나 뉘앙스가 중심서사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장식물처럼 등장하는 경우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파악이 되는 것은 책 뒷표지에 언제나 등장하는 ‘우리의 맹세’나, ‘작가의 변’들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마찬가지로 작가의 변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본문에도 등장한다. 예컨대 이정문의 『설인 알파칸』은 우주소년 알파칸이 지구침략을 노리는 ‘붉은별단’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이다. 우랄 산맥 깊이 있는 소련의 비행장이 등장하는데, “이 비행장은 자유세계를 폭격하기 위해 특별히 소련에서 만든 가장 강력한 공군력이 있는 곳”이며, “왜 소련이 붉은별단을 없애려고 하는가. 그건 소련이 세계정복을 하기 위해선 이 붉은별단이 가장 두려운 적이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써서 없애려 하는 것이다³²⁾”고 설명하고 있다. 산호의 『라이파이』는 라이파이가 지구를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는 녹의 여왕을 설득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한사람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일제히 봉기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웁니다. 간혹 가다 다른 나라의 행복을 뺏어 보려는 공산국가들의 침략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필요가 없어 졌습니다³³⁾”. 김원빈의 『포졸아기(1969, 신신문화사)』는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한 칸을 “간첩신고 113”이라는 글자로 채우는 데 사용한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지마(라이파이)”, 고기를 분배하면서 대장이랑 부하랑 같은 양으로 나누자 “잘 나뉘라, 공산당식으로!”라고 요구하고, 대장을 더 많이 주자 “과연 똑같이 나뉘구나!”라고 칭찬한다(『쌍쌍전우』 5권). 간첩, 땅굴, 괴뢰 같은 단어들은 수없이 등장한다.

사실상, 이들은 반공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이러한 무의미한 반복이야말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점차 일상화, 내면화시키는 과정중

32) 이정문, 『설인 알파칸』, 청강문화산업대학미디어출판부, 2007, 복간본, 95쪽. 1965년 11월부터 1971년 8월까지 <새소년>에 연재되었음.

33) 산호,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만화들로 복간본 제작. 2003년에 출간. 『라이파이』는 원래 1959-1962년까지 총 32권으로 출간되었다. 복간본, 342쪽.

의 하나였다. 직접적인 반공서사보다 수위는 낮을지 모르겠으나, 분명 반공이데올로기의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4-4. 반공주의의 비극성 내포

이제 반공·반북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양태 중 그 두 번째 경우를 보자. 이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나 민족적 비극과 현실에 대한 자조 등이 섞여 있는 경우로, 이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왕현의 『걸작우주전쟁모험만화 저별을 쏘라(1961, 126p, 아동세계사 독수리문고)』를 예로 들 수 있다. 1961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전검열의 대상에서 벗어나있다. 아주 먼 미래의 한국이다. 별똥박사는 곧 우주인이 쳐들어 올 거라고 세계회의에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박사와 깡패들의 방해로 거짓으로 몰린다. 오로지 한국 군인들은 별똥박사의 말을 믿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대비한다. 신무기를 개발하던 별똥박사는 어디론가 납치되고, 지구의 위기는 고요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1권이 끝난다. 세계회의에서 나오는 길에 깡패들을 만난 한국인들이 “같은 우리나라 민족이면서 왜 배반을 하나!”라고 항의하자 “시끄러워, 나라가 같으면 뭐해?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는데!”라며 상대방을 때린다. 106-107페이지에는 외계인이랑 손잡은 나쁜 박사가 깡패1에게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하자, 깡패1이 깡패2에게 자랑한다. 그러자 깡패2는 “그까짓 별난 장관도 다 싫다! 무식한 놈은 주먹만 있으면 더 바랄게 없다”라고 답하며 혼자 독백한다. “나도 옛날엔 공부도 잘하고 착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공부를 못했다. 그때부터 돈이 원수같이 싫어. 그렇지만 꽃피는 고향생각이 떠오른다”며 눈물을 흘린다.

당시 수많은 고정팬들을 지니고 있었던 산호의 『라이파이』에 실린 ‘작가의 변’은 웃음을 자아내는데, 갑자기 ‘맞춤법’을 강조한다. “516 군사혁명 의 뜻을 받들어 혁명괴업 완수에 호응하고자 애독자 여러분의 교육, 성

장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것은 극구 피할 것이며 특히 철자의 맞춤법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³⁴⁾”. 혁명과업 완수에서 맞춤법까지의 미끄러짐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만화들, 즉 반공을 이야기하는 듯하나 오히려 함축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의 뒷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아마도 상당수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5. 나가며

우리는 지금까지, 1960년대 한국만화에 나타났던 반공주의를 네 가지 형태로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의 한계는 1960년대에 발간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만화를 모두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사 남아있는 만화들을 모두 분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엄밀한 60년대 만화의 분석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히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눌 수 있다는 정도 밖에 정리해내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언급된 작품들의 작가는 한국 만화사에서 족적이 뚜렷한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고우영, 이정민, 김종래, 산호, 이정문, 김원빈은 60년대의 대표적인 만화가들이거나 또는 70년대 들어 더 활약상을 보여주는 작가들이므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위에서 나누었던 네 가지 구분은 사실상 첫 번째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세 카테고리 모두 반공주의에 대한 만화가들의 수동적 참여, 수동적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반공주의적 내용을 만화

34) 산호, 『십자성의 신비와 라이파이』의 제일 끝 페이지, 복간본 512쪽.

중에 삽입해야 하지만, 비전공자들에 의한 사전검열이란 원래 부분적이고
과편적일 수밖에 없다. 전체 서사에 반공적, 반복적 내용이 얼마나 적극
적으로 결합해있는가가 아니라 형식적, 부분적으로라도 반공 반복적 언급
이 드러나기만 하면 무사히 통과했을 것이다. 만화가 나름의 심리적 저항
이 발현된 형태로 보자면 긍정적이나, 반복되는 반공, 반복적 언급들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은 70년
대로 넘어가서도 쉽사리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1970년
대 중반기 이후 한국만화가 서서히 붕괴되었던 이유를, 60년대에 구조화
된 만화계 내부의 모순이 사회전체의 모순과 겹쳐서 이중적으로 만화가
들을 압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좀 더 세부적인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추정들을 논증하거나 반박할 계기들이 많이 만들
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tid=ns&id=GM1958082702-04>

<동아일보> 1955년 6월 24일, 1955년 11월 6일, 1955년 12월 21일,
1956년 1월 18일, 1956년 6월 27일, 1956년 7월 13일,
1956년 8월 3일, 1956년 11월 11일, 1956년 12월 20일,
1959년 6월 13일, 1958년 8월 17일, 1962년 12월 7일,
1962년 6월 12일, 1962년 9월 24일, 1962년 10월 8일,
1962년 12월15일

<국민보> 1958년 5월 28일, 1958년 8월 27일

2. 논문과 단행본

강 원, 『쌍쌍전우』, 백미문화사, 1966.

고우영, 『첩보원 B2호』, 신진문고, 1969.

고우영의 『반공만화: 김삿갓 북한방랑기』, 수문당, 1969.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관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7-42쪽,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8.

김일영, 5·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311-331쪽, 『한국국제정치학회』, 41
집 2호, 2001.

김일영, 「이승만통치기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1.

김종래, 『마음의 왕관』, 부천만화정보센터, 북간본, 2001.

박인하, 「만화, 애니메이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
술사대계 III 1960년대』, 시공사, 2001.

산 호,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부천만화정보센터, 북간본, 2003.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권, 시공사, 1998.

왕현의 『결작우주전쟁모험만화 저별을 쏘라』 이동세계사 독수리문고, 1961.

이강로, 「제3공화국(1963-1972) 정치체도의 정통성과 박정희정부」, 89-108쪽, 『한
국정치학회보』 31권 4호, 1997.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 월남 작가 박순녀의 경우, 7-38쪽, 『아시아여성연구』, Vol.47 No.1, 2008.

이정문, 『설인 알파칸』, 청강문화산업대학미디어출판부, 복간본, 2007.

이정민의 『도둑바 결사대』, 진선미출판사, 1965-1966.

Abstract

The Styles of Anti-Communism in Korean comics during 1960's

Han, Sang-J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analyse the korean comics in 1960's. In this period, the South-korea takes an anticommunist line, since the president PARK Jeong-hee became the president in 1963. The first, this paper summarize the representation of Anti-communism ideology in korean society. And then, we refer to the situation of korean comics to se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ety and the comics in this period. The following analyse focus in four styles of the representation of Anti-communism ideology in korean comics in 1960's. The first, the narrative of Anti-communist in exposed strongly. Secondly, the ideology of Anti-communist in joined secondary to the narrative. Thirdly, the ideology of Anti-communist is appeared in the guise of the critic of the society. And last, the idea of Anti-communism is revealed for decorative purpose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present the comics in 1960's because of the rareness of the comics book during 1960's. (key words : Anti-Communism, Anti-North Korea, Narrative, Anti-Communism and Anti-North Korea Comics, Hap-dong, censorship, 1960's)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8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